

사마르칸드 아프리카시암

宮殿壁畫의 使節圖

金 元 龍

I

멀리 中國陝西省乾縣의 唐章懷太子墓壁畫에 나타난 新羅使節에 關해서는 本誌 一一三・一二四號에 紹介하였는데 ① 이번에는 新羅使節이라고 생각되는 두 사람이 中央亞細亞의 사마르칸드의 壁畫에서 나타나 新羅時代의 外交活動의 活潑과 唐을 거치지 않는 直接的 西域文化 受容의 生々한 現場의 하나를 實見시켜주는 것 같다.

이 重要な 壁畫의 發見은 알리바움(I. Alibaum) 著 「아프리카시암의 繪畫」(타슈켄트 一九七五年)에서 報告되었는데 이 報告書에서 問題의 壁畫部分의 제작 寫本과 其他 必要한 情報을 日本의 考古學者 穴澤味光氏가 書信으로 보내 주었다. 그레 穴澤氏의 好意에 依해 于先 그 發見을 紹介하고 兼하여 畏友崔館長의 華甲을 祝賀하려는 바이다.

II

아프리카시암(Afrasiab)은 中央아시아의 蘇聯 우즈베크 共和國사마르칸드市 北郊에 있는 큰 城址며 이 巨大한 城址의 內城址 一二地點(圖 23)에 있는 宮殿 一部에서 一九六五年에 極彩色의 壁畫가 發見된 것이다. 사마르칸드는 옛 소그디아나(Sogdiana)의 首都로서 소그디아나는 先史時代에는 「周緣이란」文化圈의 一部로 되어 있었으나 西紀前四世紀에 알렉산더大王의 攻伐를 받고 그리스領 박트리아로 되었고 다시 西紀前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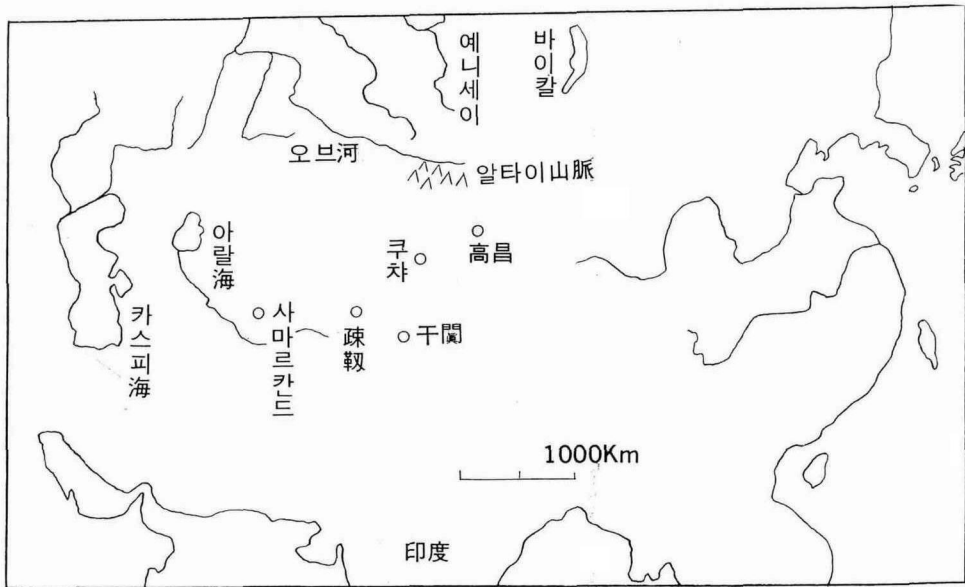


圖 1. 사마르칸드 位置略圖

世紀부터 紀元後 五世紀 中葉까지는 인도·스키투族인 大月氏族의 領土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六世紀가 되면 터키의 屬領이 되었고 八世紀부터는 아랍인의 進出로 다시 主人이 바뀌어 九—一〇世紀에는 強力한 사마니드(Samanid) 王朝가 君臨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十三世紀에 成吉思汗軍의 侵攻으로 王朝와 首都가 破滅하고 말았다. 問題의 아프리카시압城址는 이 蒙古軍 侵入以前의 舊사마르칸드城址며 蒙古軍의 大破壞를 입은 廢城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번에 發見된 壁畫宮殿은 八世紀初 아랍인에 依해 이 地方이 征服되기 以前의 現地人 소그드人 王侯의 宮殿이라고 믿어지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時期는 터키 屬領時期에 該當된다. 사마르칸드는 圖(1)에서 보듯이 中國側으로 보면 타림盆地的 天山南·北路의 西端에 位置하며 南은 아프리카니스탄을 거쳐 印度로 들어가고 西는 페르샤를 거쳐 터키, 地中海로 進出하는 古代「絹路」의 交通 要衝으로서 그 地理的 位置나 歷史로 보아 이란系 文化를 바탕으로 하면서 그레코·로만, 터어키, 그리고 漢·六朝·唐 등 各國 各地의 要素를 混合한 文字 그대로 國際的 文化를 가지고 있었다.

III

이 사마르칸드 舊城址는 總面積 五五〇에이카, 南北、南西各 一·五 km 길이의 三角形의 丘陵址이며 外柵以外에 內部에 三重의 防柵을 가졌고(圖2) 一八世紀以來의 發掘結果 西紀前 五〇〇年頃부터 西紀一二二〇年 蒙古侵入까지의 長期에 걸친 文化堆積層이 發見되었고 特히 그 中世層은 莫大한 分量의 遺物을 내고 있다.②

蘇聯의 著名한 中央아시아 考古學者인 알리바우에 依해 發掘·發見된 이번 壁畫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第二三地點 宮殿第一號室의 西壁에 있으며 이 方形의 室은 蒙古侵入以前, 八世紀初에 이 地方에 들어온 아랍人들에 依해 이 部分的으로 破壞되어 壁畫는 바닥에서 二m 높이 程度 밖에 남아 있지 않고 그것도 人物들의 얼굴은 損傷되어 있었다. 壁畫는

報告者 알리바우에 依하면 아랍人 征服直前即 西紀 七世末—八世紀極初의 것이며 사마르칸드 王에게 附近 수르칸다리아(Surkhan Daria)의 小侯자가니안 및 其他 各國에서 派遣된 使節들을 描寫한 것이다. 壁畫는 人物들의 衣裳、文樣까지도 細密하게 極彩로 나타내고 있으며 그러한 極彩密畫樣式이 敦煌의 隋代 壁畫나 우리의 通溝四神塚、日本の 高松塚古墳 등에서 보듯이 七、八世紀頃의 共通樣式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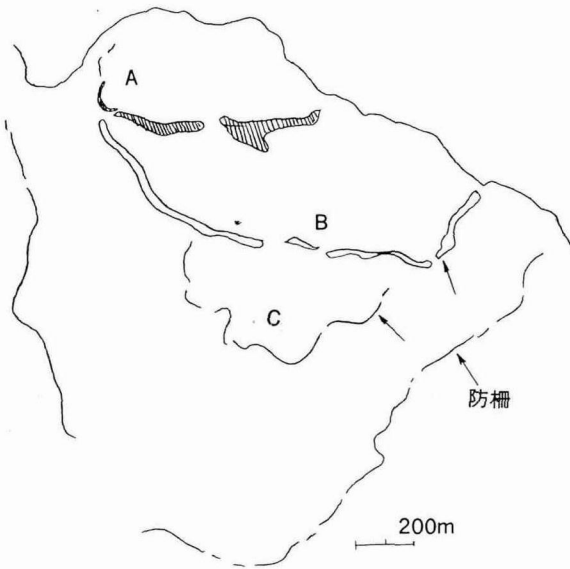


圖 2. 아프리카시압 城址 平面圖(據 Monga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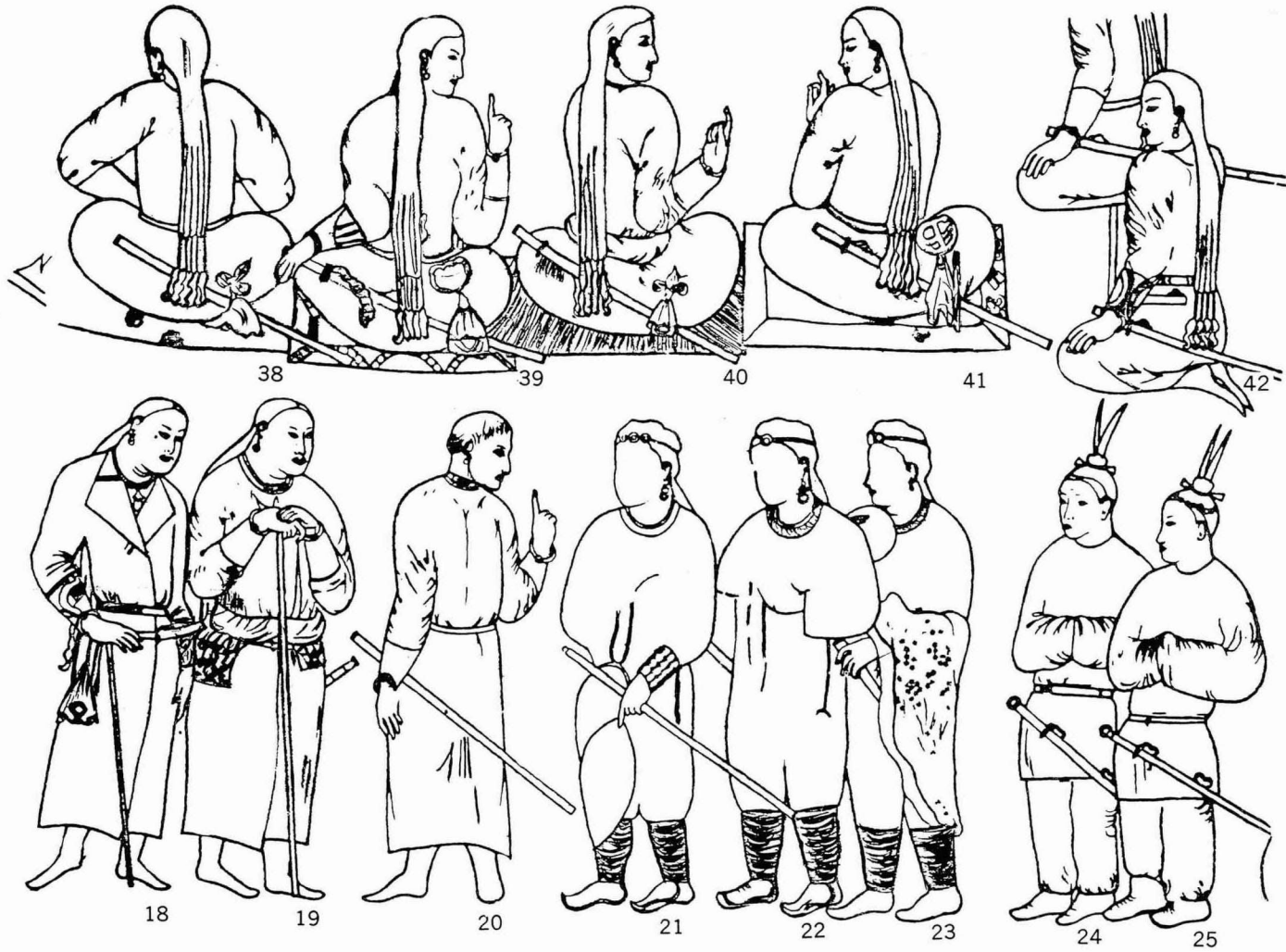


圖 3. 아프라시아 궁殿壁畫(西壁)



圖(5) 唐李賢墓壁畫人物



圖(4) 壁畫細部

圖(3)의 壁畫人物中 上列、長髮의 坐像人物들은 소그드人들이라고 생각
 각되고 있으며 下列 立像人物中 左側六人은 中央아시아 各地서 모여든
 사람들 같은데 三人은 머리에 頭巾을 쓰고 脚絆을 돌린 것이 아랍風 같
 으나 六人이 모두 귀고리를 달고 있는 것이 上列 소그드人들과 마찬가지로
 지고 中亞壁畫에서 흔히 보듯이 中央아시아人들의 共通된 治粧風習이었
 던 모양이다. 그리고 上列 坐像중 左端에서 두번째 人物이 갈고 앉은
 方席에 連珠半圓文이 보이는데 이 文樣은 新羅時代의 博文에도 나타나
 고 옷감 文樣으로 高麗末까지 流行한 文樣이기도 하다.
 却說, 問題의 新羅使節은 이 下列 右端의 三人이며(圖4) 團領袍라고
 할 수 있는 圓領、長袖의 긴 半코트形 上衣에 허리띠를 돌리고 바지를
 입고 있다. 허리띠에는 끈은 안보이나 긴 環頭刀를 길게 내려뜨리고 있
 고 머리에는 바가지形의 帽子를 쓰고 있다. 帽子는 頂部에 끈으로 맨듯
 한 突起部가 있고 그 突起部뒤에 雙角 또는 雙羽形 立飾을 꽂아 세운듯
 하다. 그리고 右側人物은 帽子中間쯤에 連珠를 한줄 돌리고 있다.
 이 人物들은 報告者인 알리바음自身이 「韓國人」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理由는 中國系 衣服이면서 特有한 雙角飾帽子를 쓰고 있기
 때문임이 分明한데 이 人物들을 一旦 新羅人으로 보고 章懷太子 李賢墓
 에 나오는 新羅使節(圖5)과 比較하면 몇가지 큰 差異點이 있다.
 于先 衣服인데 「李賢墓」人은 같은 半코트 上衣지만 左衽、寬袖의 道
 袍形에 無刀이고 바지는 아래가 트인 高句麗의 所謂 大口袴이고 朱色、
 灰色의 襖(색동)이 달린 白色衣지만 여기 「아프라시암」人은 窄袖、圓
 領、黃色의 團領袍에 佩刀이고 바지도 筒바지에 아래를 잘라맨 것이다.
 이 경우 李賢墓人의 合衽袍가 高句麗 壁畫에서 보듯이 傳統形式인 것이
 틀림없으며 團領形式은 七世紀初의 日本 聖德太子圖에서 보듯이 七世紀
 에 들어서면서 唐으로부터 新羅、日本으로 퍼져온 「뉴 모드」였던 모양
 이다. 勿論 여기서 新式이라고 하는 것은 그 「터틀넥」式 圓領뿐이고
 긴 上衣 그 自體는 韓國在來式이어서 新式이라고는 하나 正確히 따지면
 內外混合形式이다. 그리고 이 圓領은 勿論 唐服에도 있고 新羅는 唐에서

배워 왔지만 洋式이며 唐은 西域을 通해서 받아들였음이 分明하다.

新羅에서는 法興王(五一四~五四〇) 때에 처음으로 六部人의 服制를 定해서 尊卑를 가렸으나 三國史記에 依하면 「猶是夷俗」이라고 新羅在來式 服이었음을 말하고 있고 唐制를 따라 中國式 衣冠으로 바뀐 것은 眞德王二年(六四九)이었다.⁹⁾

結局 李賢墓人은 純傳統制이고 여기 「아프라시압」人은 上衣는 新式을 加味한 混合式에 바치는 舞踊塚人物式의 在來式을 입고 있어 三國史記대로 表現하면 아직 「夷俗」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眞德王二年(六四九)以前, 即 古新羅人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壁畫의 年代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랍人 侵入直前의 七世紀末, 八世紀極初로 되어 있어 分明히 統一新羅人이다. 그리고 보면 六四九년의 「以夷易華」의 中國式 服制도 完全唐式이 아니고 在來式이 基本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實情인 듯 하고 또 新羅人들의 氣質로 보아 그것이 當然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두사람 服色이 黃色으로 되어 있는데 法興王때의 服色制 定에 따르면 黃色은 新羅 十七官等中 第十二位大舍에서 第十七位先沮知의 服色으로 되어 있다. 壁畫의 色이 正確하고 六世紀 法興王때의 制定 服色이 이때까지 襲用되었는지는 確實치 않으나 萬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이들은 新羅官吏로서는 下級官吏가 되며 外交儀禮上 異常한 것 같지만 먼 나라이고 小侯國이어서 높은 高官대신 젊은 下級官吏를 보였던 것인지도 모른다.

IV

그것은 何如든 이 두사람의 雙角飾帽은 李賢墓人의 그것과 雙角式만 이 共通일뿐 細部는 크게 다르다. 即 李賢墓人은 머리위에 없고 끈으로 맨 幘帽形式이고 빗갈도 前面은 朱, 後面은 黃褐色인데 對해, 아프라시압人의 그것은 로마敎皇이 쓰는 따위의 圓頂帽에, 따로 상투같은 突起가 달린 것이며, 雙角飾도 李賢墓것은 정말 뿔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鳥羽라고 할 수 있는 形態와 裝着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 乖常한 帽子는 或是

사마르칸트畫工이 잘못 描寫한 것일까. 그러나 이 壁畫가 衣紋까지 精密하게 描寫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不正確한 記憶圖나 想像圖라고 할 수는 없고 亦是 帽子의 原形이 그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그 帽子는 李賢墓人式의 幘頭가 아니라 古新羅人들의 三角形內帽을 棼으로 만들고 頂部가까이를 끈으로 매어 上部가 앞으로 꺾이게 한 形式의 帽子로서 앞서 말한 日本의 聖德太子가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新羅서는 거기에 雙羽 또는 雙角立飾을 그대로 남겨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 帽子는 그들의 옷과 마찬가지로 李賢墓의 純粹傳統形式에 對해 新式 또는 改良式 帽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李賢墓人이 三國末期 統一初 即 七世紀中葉頃의 新羅人을 描寫한 것이라 하면 「아프라시압」韓人은 정말로 七世紀末, 八世紀初의 新羅人이고 따라서 七世紀後半의 五〇年 동안에 新羅에서 冠帽・衣服의 近代化(?)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고 問題의 眞德王二年(六四九), 이어서 文武王四年(六六四)의 服制改革은 完全 唐制가 아니라 여기 보는 程度의 改革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李賢墓人도 그렇지만 여기 「아프라시압」人도 귀고리를 차지 않고 있어 귀고리를 달은 現地人들과 對照의인데 古新羅人들의 登錄商標처럼 되어 있는 귀고리가 없는 것은 李賢墓人의 八字수염이 여기서는 깨끗하게 없어진 것과 함께 亦是 七世紀中葉에 일어난 新羅人들의 「生活近代化」運動의 結果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다.

V

以上 본바와 같이 이 아프라시압 壁畫의 두人物은 西紀 七〇〇年頃の 新羅人으로서 그들은 앞서言及한 것처럼 下級官吏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政府官吏인 點에서 四頭品以上이며 新羅에서는 貴族이었음이 分明하다. 그리하여 이들은 西紀 七〇〇年頃の 新羅貴族의 正裝服制를 알려 주는 貴重한 資料라 하겠다. 특히 그 服制는 眞德王二年(六四九), 文武王四年(六六四)의 服制改革後의 그것이며 三國史記에서는 「以夷易

華」라 하여 完全 中國化했다고 記錄되어 있으나 그 實相은 基本的으로 合柱를 圓領으로 바꾸었을 뿐이고 細部만을 손질한 改良傳統式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고 新羅의 固有色을 잘 남긴 것이었음을 實地로 보려는 貴重한 資料이기도 하다.

세 번째로 이 壁畫가 우리에게 貴重한 것은 新羅에서 그 먼 西域에까지 使節을 보냈다는 事實이며 新羅文化에 섞여 있는 西域的 要素는 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直接的인 接觸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當時 新羅에서 여기 사마르칸드까지 가려면 慶州에서 陸路로 南陽灣으로 나와 바다를 건너 黃河로 들어가 다시 陸路로 長安을 거치고 天山南路의 沙漠길을 따라 狹窄한 길을 거쳐 總距離 延延六千餘里, 往復二, 三年은 걸렸을 大旅行이다. 新羅가 그런 나라의 存在를 알게 된 것은 唐을 통해서였지만 本意는 政治的인 것이 아니라 外部世界를 알고 外部世界의 文物을 받아들여려는 進取的인 文化的意欲에서였을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千餘年前에 異域萬里를 찾아 갔던 新羅人들의 모습이 多幸히 現地畫工의 손에 依해서 忠實한 스켈치로 남게 되고 그것이 이제 發掘되어서 다시 우리앞에 나타나 新羅의 여러가지 모습을 實地로 보게 해 준 것은 形容할 수 없는 感激이며 그것을 파내고 報告한 倣連의 考古學者나 即時資料를 보내준 日本의 考古學者나 學問이란 亦是 國境을 넘어서 人類文化全體의 解明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것이다. (七六, 二, 八)

註

- ① 拙稿「唐李賢墓壁畫의 新羅使(?)에 對하여」考古美術 一一三・一二四(一九七四, 一一) P. P. 17~21
- ② Mongait, A.I., *Archaeology in the U.S.S.R.* (Penguin Book, 1961) pp. 246~248
- ③ 三國史記 卷三三 雜志一
眞德王二年 金春秋入唐 請襲唐儀 太宗皇帝詔可之 兼賜衣帶 遂還來施行以

夷易華 文武王四年(六六四) 又革婦人之服 自此以後 衣冠同於中國

追記

① 三國史記樂志 舞樂服制에 「放角幘頭」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新羅人들의 雙角形立節帽을 指稱하는 듯하며 따라서 新羅帽의 立節은 羽가 아니라 牛角(牛角形飾)이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② 이 壁畫人物을 新羅人으로 본다는 筆者의 意見이 新聞紙上에 發表된 뒤 高柄翊, 閔斗基兩氏로부터 (1) 그렇게 먼 距離이니 新羅가 아닌 渤海나 當時 西部中國에 있던 韓國人集團으로부터의 使者일 可能性이 더 크지 않느냐 (2) 設使 新羅人이라 하여도 어떻게 그들이 新羅政府에서 「派遣」되었다는 證據가 있는가 하는 辛辣한 口頭批判을 받았다. 우리는 渤海人들의 服裝을 알 수 없어 確信할 수는 없으나 渤海의 支配層이 高句麗人이었다면만큼 渤海官吏들이 이러한 放角幘頭에 狹袖上衣, 狹口袴를 입었을 可能性이 크고 그래서 이 壁畫人物이 渤海使일 可能性은 認定된다. 앞으로 더 研究해 볼 問題이다. 그러나 中國邊境의 移住民集團이 外國에 使節을 보냈거나 그런 使者를 받아들였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두 번째의 「正式派遣」問題에 있어서 는 그들이 新羅人이었다면 印度로 가는 留學僧以外에는 服裝으로 보나費用으로 보나 政府官吏 아니어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으며 그들이 政府官吏였다면 「政府派遣」아닌 다른 경우를 생각할 수 없을 것 같다. 또 距離가 멀어서 그러한 派遣은 非現實의 같다고 하지만 新羅使가 唐都長安에 까지 간 것은 確實하고 보면 長安까지 갔던 新羅人들이 當時의 國際都市 長安에서 더 西域에까지 가는 것이 果然 不可能하였을까. 勿論 이런 問題는 考古學的 領域以外的 것이니만큼 筆者로서는 갑자기 이以上 더 들어갈 수 없으며 앞으로 歷史學者들이 더 밝혀주기를 바랄뿐이다.

③ 穴澤氏는 그 뒤 다시 便紙를 보내와 이 壁畫의 年代를 倣連學者들이 七世紀中葉頃으로 본다고 하며 따라서 高句麗人일 可能性도 있다고 말하고 朝鮮學報에 따로 그 方向으로 原稿를 쓰고 있다고 하였다. 萬一 이 壁畫의 年代가 七世紀中葉이라고 한다면 新羅보다는 高句麗人일 可能性이 確實히 더 크다. 그러나 이 壁畫의 정확한 年代決定은 우리의 能力圈 밖에 있으니 일단 七世紀末, 八世紀初라는 年代觀위에서 그대로 發表하여 두기로 하는 바이다 (七六·七·一一). (서울대학교 박물관)